

486세대 여성의 고정희 문학 체험

- 80년대 문학담론과의 길항관계를 중심으로

김 양 선*

1. 들어가는 말-80년대의 고정희 읽기, 이 천년 대의 고정희 읽기
2. 비평 담론에 의해 구성된 고정희 문학의 정체성
3. 여성해방문학론의 출발과 고정희 문학
4. 고정희의 여성문학비평 다시 읽기
5. 나가며-40대에 고정희 시를 읽다

〈국문초록〉

본고는 486세대 여성의 사회체험과 문학체험의 맥락에서 고정희 문학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80년대와 90년대 초 문학비평 장에서 고정희 문학에 대해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 문학비평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80년대 여성문학 연구자에게 영향을 미쳤던 고정희의 여성문학 비평담론과 시 작품을 다시 읽고자 한다.

먼저 80년대 문학비평의 장에서 고정희는 본격비평의 대상으로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민중적 관점을 견지했지만 동시에 여성의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시적으로 형상화했던 그의 시는 ‘민족’ 중심성, ‘노동계급’ 중심성의 당시 평단에서 해석의 그물망에 들어오지 않았다.

두 번째, 고정희의 여성문학비평은 두 편에 불과하지만 여성문학비평 연구에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한국여성문학의 흐름-시와 소설을 중심

* 한림대학교 교수

으로」는 고전시대부터 80년대까지 여성작가들의 문학을 여성해방적 관점에서 정리한 글로, 향후 여성문학(사) 연구, 여성문학 제도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여성주의 문학 어디까지 왔는가?-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에서 고정희는 여성주의 문학을 세 단계로 제시하면서, 고발·폭로와 새로운 유토피아적 비전을 동시에 지향했다. 이는 민중성과 ‘자매애’, ‘모성성’을 포괄하는 여성문화적 비전 양자 중 어느 것에 선차성을 둘 것인가에 대한 80년대 여성문학 논쟁을 두고 고심했던 고정희의 독자적인 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정희의 시는 여성해방론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여성사연구」 연작뿐만 아니라 민중성과 일상성을 기반으로 한 「사십대」, 「사랑」, 「우리동네 구자명 씨-여성사 연구 5」에서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여성문화적 비전을 실현하였다.

주제어 : 486세대, 여성문학비평, 여성문화적 비전, 여성해방론, 민중성, 자매애

1. 들어가는 말-80년대의 고정희 읽기, 이 천년 대의 고정희 읽기

사십대 문턱에 들어서면
 바라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기다릴 인연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안다
 아니, 와 있는 인연들을 조심스레 접어 두고
 보속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씨뿌리는 이십대도
 가꾸는 삼십대도 아주 빠르게 흘러
 거두는 사십대 이랑에 들어서면

가야 할 길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안다
선택할 끈이 길지 않다는 것도 안다
방황하던 시절이나
지루하던 고비도 눈물겹게 그리안고
인생의 지도를 마감해야 한다

쭉정이든 알곡이든
제 몸에서 스스로 추수하는 사십대,
사십대 들녘에 들어서면
땅바닥에 침을 뱉, 뺏아도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안다
다시는 매달리지 않는 날이 와도
그것이 슬픔이라는 것을 안다

-「사십대」

80년대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화두가 되었던 노동해방과 민족·민중해방론은 공공연하게 ‘여성’이라는 범주를 괄호치고 논의되었고, 그것은 노동해방문학론과 민족·민중해방문학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다. 여성문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느냐, 여성만의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한가라는 사상적 심문을 받았던 경험은 80년대 초·중반 대학을 다녔던 여성에게는 익숙한 것일 터이다. 때문에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여성들이 여성/여성문제/여성해방의 독자성을 절감한 것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실천의 일환이었다.

80년대 고정희 문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여대생 혹은 지식인 여성들에게 수용되었다. 하나는 「한국여성문학의 흐름-시와 소설을 중심으로」라는 여성문학비평이다. 『또 하나의 문화 2호-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1986)에 실린 이 글은 한국문학에서 여성문학비평의 출발점 역할을 하였다. 본격적인 여성문학비평이 막 싹 튼 시점에 발표되었기에 예비 여성문학 연구자들에게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문학사를 본다는 것’의 의

미가 무엇인지 좌표를 설정하고 시각을 정립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여성해방출사표』 등 고정희의 페미니즘 시집은 80년대 중후반 여성문제에 눈떴던 여성들이 모종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었던, 여성해방 교과서의 역할을 했다.

본고의 목적은 이십대에 『여성해방출사표』를 읽으며 선명한 여성해방 의식을 다졌던 여성 주체가 근 이십 년이 지나 고정희의 「사십대」를 다시 읽으면서 제 몸을 스스로 거두고 책임져야 하는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에 공감하게 되는 과정을 486세대 지식인 여성의 경험으로 객관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486세대 여성¹⁾의 사회체험과 문학체험의 맥락에서 고정희 문학이 위치한 자리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80년대 고조된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비성적(非性的), 몰성적(沒性的) 지식인 집단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여성이자 지식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심문받고 자기검열을 했던 ‘나’의 자리를 되짚어 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는 먼저 80년대와 90년대 초 문학비평 장에서 고정희 문학에 대해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 문학비평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80년대 여성해방문학론의 성과와 한계를 반성적으로 추적하면서, 여기서 고정희의 여성해방문학론과 시가 어떻게 당대 논쟁에 개입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사회나 정치, 문화 분야에서 통칭되는 ‘486세대’는 60년대에 출생해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40대를 일컫는다. 이들은 20대에 저항과 변혁의 연대인 80년대를 통과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이끈 주축으로 평가받는다. 본고에서 ‘486세대’ 뒤에 ‘여성’이라는 성적 표지를 덧붙인 이유는 80년대 대학사회의 전반적인 민주지향성과 민주화 열기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의 강고한 남성중심성으로 인해 여성들이 차별적인 경험을 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학 서적의 출간분과 함께 들어온 여성학 서적을 접하면서 페미니즘 의식을 자발적으로 정련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 비평 담론에 의해 구성된 고정희 문학의 정체성

초기 시집 『지리산의 봄』(1987)에는 고정희의 여성주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작시인 ‘여성사 연구’ 1에서 6까지가 수록되어 있다.²⁾ 성민엽은 뒤에 실린 평에서 “고정희의 자유롭고 활달하며 힘과 열정에 가득 찬 시편들이 강한 투쟁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남성적 투쟁의 의도성에 지나치게 갇혀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지나치게 갇혀 있음은 시적 깊이의 형성을 제한한다.”고 평가한다. 성민엽은 “강한 투쟁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을 두고 “남성적 투쟁”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 ‘남성적 투쟁’이다. 힘과 열정에 가득찬 시편들을 ‘남성적’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 시비평의 오랜 관행이다. 식민지 시기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에서 볼 수 있는 비애에 가득찬 어조, 님을 대상으로 한 그리움을 ‘여성적 어조’라고 불러왔던 것은 반대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상실감과 수동성을 ‘여성성’, 힘과 열정을 ‘남성성’에 비유하는 낯익은 이분법적 체계는 고정희의 시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재연된다. 고정희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힘과 열정에 가득 찬 투쟁성을 표출함으로써 남성적 투쟁에 갇히게 되었다는 평가는 역설적으로 여성작가는 여성성을 주조한 작품의 영역만 할당받아 왔다는 것을 뜻한다.

『초혼제』 시집 뒤에 실린 김정환의 발문은 시인과의 오랜 친분을 고려 하더라도 고정희를 ‘여성적’인 것에 가두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오늘 그(고정희·필자 주)는 생전 처음(?)으로 짙은 루즈를 바르고 술 자리에 당당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단언컨대 짙은 루즈는 그의 얼굴에

2) 이 시편들은 원래 『또 하나의 문화 제3호-여성해방의 문학』에 발표되었다. 조혜정은 고정희가 『여성해방의 문학』의 편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혜정, 「시인 고정희를 보내며」,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하나의문화, 1993, 231쪽.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중략) 그의 어투는 언제나 “어따 오매! 피 냄새야 / 어따 오매! 월한 냄새야”라는 자신의 식귀가 연상시켜주듯 앙칼지되 구르는 듯하고, 목이 미어지되 의외로 낭랑하다. 그는 또 의외로 기독교인이며 의외로 술이 세고 의외로 소녀적이며 의외로 남성적인 톤을 구사하며 의외로 누님같고 아아, 의외로 아직 미혼이다.

그런데 이런 의외성으로 이루어진 면모와는 달리 그는 오히려 어떤 ‘일상성’을 무기로 삼아 전달효과를 노리는, 그리하여 바야흐로 어떤 ‘고통의 민중성’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시인인 듯싶다. 아래의 글은 그 ‘고통과 일상성의 변증법’의 과정을 밝히는 데 바쳐진다.³⁾

‘소녀적’ 이미지와 ‘누님’의 이미지, 그리고 ‘미혼’이라는 사실을 ‘의외성’으로 범주화하면서 구축된 ‘일상성’과 ‘민중성’은 역설적으로 일상성과 민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성적인’ 자질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여성적 자질에 대한 혐애화된 시각, 민중·민중문학의 전범을 남성화하거나 혹은 성적 자질이 배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80년대 문학비평의 일관된 특성이었다. 80년대 문학비평의 장에서 고정희는 충분히, 그리고 공적으로 말해지지 않았다. 시종일관 민중적 관점을 견지했지만 동시에 여성의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시적으로 형상화했던 그의 시는 ‘민족’ 중심, ‘노동계급’ 중심의 당시 지배적인 평단에서 해석의 그물망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⁴⁾

3) 김정환, 「고통과 일상성의 변증법」, 고정희, 『초혼제』, 창작과비평사, 1983, 167-168쪽.

4) 단견일 수 있으나 고정희 관련 학술논문에 비해 평론이 부족한 점, 고정희 시에 대한 평론을 주로 해당 시집의 뒤에 실린 해설 정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본격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한편 고정희의 페미니즘 시를 집중적으로 다룬 학술논문은 그 양이 꽤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래의 연구성과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성과들은 고정희 시에 대한 당대적 평가가 아니거나, 여성문학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90년대 중반 이후의 글들이기에 본론의 논의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구명숙, 「80년대 한국 여성시 연구-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성 일탈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숙명여대한국학연구소, 1996.

송명희, 「고정희의 페미니즘 시」, 『비평문학』, 1996.

김승희, 「상징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

이천년대 들어와서 고정희에 대한 비평이나 문학사 쪽의 평가는 다소 변화하게 되지만, 고정희 시 세계의 두 축을 이루는 민중적 관점과 여성의 관점을 동시에 사유하는 시각은 여전히 미흡하다. 가령 1980년대의 시적 지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한 글은 ‘민중적 서정시’의 범주에 고정희의 『이 시대의 아벨』을 언급하면서 고정희의 시편들은 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정적 주체가 시대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띠고 있으면서, 대안적 사유를 지향한다고 보았다.⁵⁾ 특정 작품집을 주로 언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정희의 80년대 시세계를 민중적, 사회역사적 관점에 한정해 논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쪽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3. 여성해방문학론의 출발과 고정희 문학

80년대 민족문학론의 분화과정 속에서 여성해방문학론은 독자적인 담론적 권위를 찾아가게 된다. 『여성』지 그룹과 『또 하나의 문화』 그룹으로 불렸던 두 집단의 입장 차이는 서구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 문제, 민족

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정효구, 「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인문학지』, 충북대인문학연구소, 1999.

김두한, 「‘여성’ 그 왜곡된 기호에 대한 시적 저항-고정희 시집 『여성해방출사표』의 세계」, 『한국현대시비평』, 학문사, 2000.

이소희, 「‘고정희’를 둘러싼 페미니즘 문화정치학-여성주의 연대와 역사성의 관점에서」, 『젠더와 사회』, 한양대 여성연구소, 2007.

이경희, 「고정희 시의 여성주의 시각」,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학회, 2008.

최근 연구들은 고정희의 페미니즘 시를 ‘여성 역사 쓰기’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연시’의 의미를 집중 규명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희, 「서정의 확장과 시로 쓰는 역사」, 『비교한국학』 19권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문혜원, 「고정희 연시의 창작 방식과 의미-『아름다운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5) 유성호, 「민중적 서정과 존재 탐색의 공존과 통합-1980년대의 시적 지형」, 『작가연구』 15호, 깊은샘, 2003, 276쪽.

· 계급· 성 중 어떤 범주를 여성 억압의 주 요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확연하다.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궤를 같이 하는 『여성』지 필자들의 글과 여성문화의 독자성을 표방한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의 글은 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여성해방문학론의 성과와 한계를 보여준다.

먼저 전자는 방법론으로는 리얼리즘, 이념적으로는 민족·민중문학론을 지향한다. 이들의 논의는 민족민중문학론이 노동해방문학론으로 변화하면서 계급적 입지점을 분명히 했던 것과 유사하게 초기에는 ‘기층여성민중의 시각’에서 출발해서 점차 ‘여성노동자의 시각’으로 선회한다. 이들의 입장이 당시 민족문학 주체논쟁의 추이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⁶⁾ 그렇지만 이들은 민중민중문학 계열, 노동문학 계열 작품들이 지닌 한계를 여성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을 형상화할 때 여성적 시각이 부족한 점을 들어 비판한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문제를 부각시켜 다른 작품들에 드러난 도식성, 관념성, 협애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민중민중문학론의 기본틀을 따르면서도 그것의 반/비여성성을 문제 삼고, 한편으로는 여성주의 문학의 반/비계급성을 문제 삼는 양날의 칼을 구사함으로써 자기 이론을 구성해 간다. 하지만 『여성』지 그룹의 여성해방문학론에 대해 고정희는 “여성노동자의 시각이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될 문학적 비전이 어떤 것인지, 여성노동자의 시각이 어떻게 남성지배문화의 모순을 해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⁷⁾라고 비판하였다. 고정희의 비판은 ‘여성노동자의 시각’이 선언적 진술에 그친 점, 계급적 관점 외에 성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 폭로와 대립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전망 제시가 부족한 점에

6) 좀더 자세한 논의는 줄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정치학-197-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경계에 선 여성문학』, 역락, 2009를 참고할 것

7) 고정희,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 『문학사상』, 1990.2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하나의 문화, 1993, 198쪽에서 재인용) 이하 고정희의 여성문학론은 이 책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조혜정은 진보적 민족문화론이 노정했던 동일성의 오류를 진보적 여성해방문화론이 복제했다고 본다. 조혜정은 ‘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층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만, 실제 해결방안이나 대안문화로서의 여성문화 내용을 보면 ‘성모순’을 중시하는 쪽에 가깝다. 여성문화는 “억압받는 자로서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 자녀양육 능력, 타인과의 제휴 능력 및 사려깊음”⁸⁾으로서 체험의 국면과 여성 특유의 관계지향성을 강조한다. 즉 여성성, 여성문화의 독자적 구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매애’로 통칭되는 여성들 간의 연대가 지닌 국제성은 제1세계 여성과 제3세계 여성 간, 중산층 여성과 노동계급 여성 간의 차이나 위계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두 세계 간의 이질적인 상황과 경험을 ‘여성-자매애’라는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해 봉합하는 것은 엘리티시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고정희가 경계했던 것도 바로 이 점이였다. 고정희가 지속적으로 견지한 민중적 관점, 제3세계 여성의 시각을 고려한 탈식민의 관점은 그런 점에서 작품이 이론을 압도하는 좋은 예가 된다. 고정희는 80년대 후반 정점에 달했던 ‘민중적’ 관점과 ‘여성-자매애적 연대’의 관점 사이의 대립을 시적 실천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앞으로의 “여성해방문학은 현 민족 문학이 지닌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낙관적 대답을 넘어서서 더 많은 민중의 한숨을 끌어안는 열린 질문, 비판적 리얼리즘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던 여성해방 문학가 고정희. 그대는 자신의 입장을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로 이름하며,⁹⁾

(나)한편 또 하나의 문화 창작 소집단의 여성 문학 입장은 ‘성모순이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의 유지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공동

8) 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또 하나의 문화3호-여성해방의 문학』, 또하나의문화, 1987, 33쪽.

9) 조혜정, 『그대, 쉬임없는 강물로 다시 오리라』, 『너의 입술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하나의문화, 1993, 228-229쪽.

의 인식 기반 위에서 출발, “여성들이 겪어 온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차원의 억압 경험들이 여성문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문학은 그 창작 과정에서 ‘고발 문학의 단계, 비판적 재해석의 단계, 참다운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¹⁰⁾ 등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이 세 단계가 한 작품 속에서 형상화될 수 있을 때 참다운 남녀 해방의 비전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가)와 (나) 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고정희는 성 범주와 계급

- 10) 여성해방문학을 세 단계로 나누고, 세 번째 단계인 비전 제시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또 하나의 문화」 그룹 구성원의 공통된 인식이다. 아래 『또 하나의 문화 제3호-여성해방의 문학』서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가 표제로 내세운 ‘여성 해방 문학’의 기초는 여성들이 겪어 온 심리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차원의 역사적 억압 경험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에서 출발한다. 여성 해방 문학은 동서를 막론한 가부장적 사회 체제가 지배와 경쟁, 약탈과 소유를 일삼는 한편 그 희생의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에 공동의 인식 기반을 갖는다. 이 공동 인식 기반을 전제로 여성 문학은 그 성숙의 정도에 따라 대개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고발 문학의 단계, 비판적 재해석의 단계, 참다운 해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고발 문학의 단계는 기존 체제 안에서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억압을 고백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철저히 폭로하고 증언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공간적 부조리를 사실 그대로 인식해 나가는 데 있다.

재해석 문학의 단계는 지금까지의 기존 문화가 규정하고 보편화시켜 온 일체의 가부장적 속성을 피지배자의 시각으로 해부함으로써 그 동안 왜곡되어 왔던 여성적 체험을 살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인간다운 사회상을 제시하는 문학적 차원이다.

여성 문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세 번째 단계는 지구촌의 남성과 여성이 다 함께 자유와 평화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세계, 서로 동지가 되고 서로의 인간성을 떠받쳐 주는 세계, 해방된 사람끼리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선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세계관의 차원이다.

앞의 페미니즘 문학의 발전 단계를 적용시켜 볼 때 우리 한국 여성 해방 문학의 수준은 아직 고발 문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 세 단계가 동시적으로 공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문학 70년 사상 최초로 시도된 이 기획 작품집 속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의 여성 문학은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성이 사회에서 직·간접으로 당하고 있는 차별과 억압 현실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을 것이냐의 고발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해방의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 에너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 11) 고정희, 앞의 글, 198쪽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선차성을 부여하는 권위적, 단성적 시각을 거부하고, 양자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가)에서 고정희가 추구했던 여성해방문학은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로 명명된다. 그것은 도시적인 계급주의나 혁명적 낭만주의와 같은 이상적인 이념형보다는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리얼리즘의 원칙에 충실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나) 글에서 고정희는 “고발 문학의 단계, 비판적 재해석의 단계, 참다운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한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는 단계를 이상적으로 제시했지만, 시적 실천의 영역에서 주력했던 것은 고발문학의 단계를 넘어선 비판적 재해석, 참다운 비전의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당시 여성문학의 수준, 여성해방문학론의 수준이 한국사회에 팽배한 가부장제,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고발과 비판에 주력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여성사연구」 연작에서 ‘반지 뽑기 부인회’나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을 재조명하거나 「이야기여성사」 연작에서 황진이, 이옥봉, 신사임당, 허난설헌 등의 목소리를 빌려 오는 것은 ‘비판적 재해석’ 작업에 해당한다. 예의 「이야기여성사」 연작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대화적 목소리를 취하는 것, 과거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다였던 국민교육헌장을 패러디하여 “남녀평등 평화 민주세상 이룩함을 / 여자해방 투쟁의 좌표로 삼으며 / 여자가 주인 되는 정치평등 살림평등 경제평등을 바탕으로 / 분단 분열 없는 민족공동체 회복을 / 공생 공존의 지표로 손꼽는다”(「허난설헌이 해동의 딸들에게-이야기 여성사4」)라고 천명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생의 비전을 제시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고정희의 작업에 대해 진보적 여성해방문학 진영은 어떻게 반응했던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페미니스트 비평가로 활동했던 김영혜는 고정희 사후 작품세계 전반을 짚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의 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점은, 소위 ‘여류’의 냄새가 그의 시세계에는 전혀 개입할 틈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시

가 ‘여성적’ ‘남성적’이나 하는, 흔히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논란을 되풀이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류시인’이란 타이틀을 별로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 부류의 여성시인들이 안이하게 써 대는 몽롱하고 알팍한 감상주의와 고정희의 시는 아예 족보를 달리 한다는 말이다.¹²⁾

그러나 여러 평자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저 무덤 위에..』나 『여성해방출사표』 같은 여성해방 의식 하에 씌어진 작품들은 그 이전의 고정희 시의 깊이와 긴장감을 많이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성급한 폐미니즘 시각으로 오히려 역사와 현실을 다분히 관념화시키면서 낭만적인 치유와 화해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180쪽)

김영혜는 “몽롱하고 알팍한 감상주의”, 여성성에 대한 신화화에 바탕을 둔 ‘여류문학’을 부정하는 맥락에서 고정희 시를 고평한다. 하지만 오히려 뚜렷한 ‘여성해방 의식’을 목적으로 한 작품들이 형상화의 수준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고정희가 지향했던 ‘참다운 비전’이 ‘관념화된 낭만적인 치유와 화해’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영혜는 오히려 마지막 시집인 『아름다운 사람 하나』에 실린 ‘연시’들이 고정희 시세계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강렬한 사회 의식과 여성해방에의 의지”와 같은 목적의식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여성성과 리얼리즘의 조화, 고정희가 추구했던 ‘여성민중주의적 현실주의’가 가능함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지 그룹의 또 다른 글 역시 여성해방 의식 하에 씌어진 고정희의 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고정희의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는 우리의 전통적 굿거리 장단 속에 역사적 수난자요 초월자로서의 어머니를 담아보려 한 작품

12) 김영혜, 「고독과 사랑, 해방에의 절규: 고 고정희의 시세계」, 『문예중앙』, 중앙일보사, 1991년 봄, 178쪽.

이다. 그런데 새로운 인간의 모델이라고 시인이 의도했던 어머니상이 과연 그에 합당한 시적 울림을 가져왔는지, 또 이러한 시인의 의도 자체는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물론 첫째 거리 ‘저리산에 누운 어머니, 구월산에 잠든 어머니’나 넷째거리 ‘낮이여, 망월동에 잠든 낮이여’에서 어머니는 역사의 현실적 수난과 고통을 담지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대부분의 시에서는 다분히 초월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어머니를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인물로 그리게 되면 어머니 속에 내재해 있는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짚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시인의 이러한 관념적인 여성문제 의식이 땅으로 내려와 여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¹³⁾

여성해방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이지만 관념적인 여성문제 의식으로 인해 역사성과 현실성을 사상했다는 평가이다. 이 글의 필자들이 ‘여성노동자의 시각’을 비평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여성문제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고정희의 이 작품은 온당하게 평가될 수 없었다.

고정희는 여성문학은 “진정한 여성문화 양식을 형성”해야 하며, 여성문화란 가부장제 남성 문화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문화로서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성적 생명 문화”여야 한다고 보았다.¹⁴⁾ 고정희가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에서 시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성적 생명 문화를 굿거리 장단이라는 전통의 갱신 방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었을 터이다. 이런 시인의 의도를 고려해 볼 때 여성해방의식의 시적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형식을 모색했던 고정희의 시도는 80년대의 경직된 비평장에서 저평가되었다.¹⁵⁾

13)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67호, 창비, 1990년 봄, 67쪽.

14) 고정희, 「한국 여성문학의 흐름-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책, 176쪽.

15) 물론 형식적 실험이 곧 작품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에서 작가의 의도가 그 의도에 걸맞은 시적 성취로 이어졌는지는 재고를 요한다. 하지만 이천 년대 이후 고정희 시 연구에서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여성(해방)문학론의 사뭇 다른 분파 속에서 고정희 문학, 그리고 고정희 문학의 페미니즘적 성격은 평가에 따라 미묘한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노정했다. 필자가 고정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80년대 여성문학 비평의 성과와 한계를 논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 때문이다. 80년대 민족민중문학론에 뿌리를 둔 진보적 여성해방문학론은 고정희 문학의 페미니즘적 성격을 협애화해서 보는 우를 범했다. 고정희가 ‘사회주의 여성해방문학론’이라 칭했고, 동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또하나의문화』 그룹의 여성주의 문학론은 ‘민중성’이 필연적으로 도달할 지점인 ‘계급성’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양 그룹 모두 고정희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을 생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고정희에 대한 양 쪽의 비평, 즉 진보적 여성해방문학론의 지나치게 도식적인 재단비평과 여성주의 문학론의 고정희 문학에 대한 사적인 관계망에 기댄 애도의 글쓰기¹⁶⁾는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갓 시작된 여성(해방)문학 비평의 성과와 한계를 보여주는 전범이라 할 수 있다.

4. 고정희의 여성문학비평 다시 읽기

고정희는 여성문학론과 관련하여 두 편의 글을 남겼다. 「한국여성문학의 흐름-시와 소설을 중심으로」(1986)는 고전시대부터 80년대까지 여성

를 여성적 글쓰기의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면, 80년의 평가가 단선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고정희의 ‘굿시’에 내재한 여성적 글쓰기의 전복적 측면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는 아래와 같다.

김승희, 앞의 논문.

김란희, 「고정희 ‘굿시’에 나타난 기호적 코라의 특성-『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를 대상으로」, 『비교한국학』 19권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 16) ‘또하나의 문화’ 동인들의 인적 구성상 본격적인 문학비평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애도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고정희 사후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에 수록된 그녀에 대한 다양한 기억의 글쓰기를 지칭한다.

작가들의 문학을 여성해방적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이 글은 여성작가들의 존재와 작품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여성작가들이 쓴 문학”에 국한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생물학적 특성을 근거로 여성문학의 범주를 정하는 초기 여성문학이론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정희의 이 글을 여성문학 이론이 좀더 정교해진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 주목할 부분이 많다.

먼저 조선시대 여성작가의 존재를 알린 점이다. 고정희는 “이조 5백년에서 구한말을 이르는 여성작가는 150명에 달하고 이를 다시 분류하면 개인 문집을 남긴 대가만도 21명이며 군소작가는 1백여 명에 달한다.”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 이외에 이옥봉, 강정일당, 박죽서, 남정일현 등의 존재를 소개하였다. 이들의 작품세계는 최근 고전여성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재평가되면서 고전여성문학 장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고정희는 개화기 및 일제 시대 여성작가들의 등단시기와 매체, 전기적 사실을 상세히 알렸다. 이 서지사항은 몇몇 대표작가뿐만 아니라 군소작가까지를 두루 포괄하고 있다. 더욱이 개화기 및 식민지 시기 여성작가들이 대부분 해외유학 경험이 있으며, 기자나 교사 등 지식인 여성이라는 지적은 향후 여성문학사나 여성문학 제도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당시 자료 구득이 힘들었고, 변변한 선행 연구가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그의 개인 작업은 향후 여성문학(사) 연구, 여성문학 제도 연구에 원 자료를 제공한 선구적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1930년대 여성문학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남성중심의 근대문학장이 여성작가와 문학을 배제하는 논리를 간파하고 있다.

진정한 여성에 의한 ‘여류문학’을 ‘여류 특유의 섬세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은 또한 역사성 혹은 사상성이 부재한 것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사회 인식의 깊이를 갖춘 작품에는 ‘여성성의 소실’이라고 딱지가 붙었다. 이에 ‘여성다운 여류’라는 프리미엄을 안

겨 주는 실로 성차별적인 비평풍토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¹⁷⁾

고정희는 1930년대 여성문학, 이른바 제3기 여성작가들이 문단에서 자기 입지를 다지고, 일제 말기에 살아남기 위해 남성의 시각에 의해 규정된 ‘여성성’에 매몰됐고, 이것이 해방 후 여성문학의 경향에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193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여성문학사 및 제도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천 년대 연구자들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요컨대 여성문학을 ‘여성성’으로 규범화하는 남성중심의 문학제도에 대한 순응과 구별짓기 사이에서 유동하는 여성문학 장의 특성에 대한 그의 분석은 오늘의 시각에서 보아도 정확한 탁견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정희는 해방 후부터 60년대까지를 ‘여류문단’이라고 규정한다.

60년대를 번성기로 삼은 여성문학은 질적·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단의 주도적 흐름에서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다는 감을 감출 수 없다. 예를 들면 60년대를 풍미한 문학 논쟁, 즉 ‘순수’와 ‘참여’ 논란에서 여류 문학은 무관한 자리를 고수하였으며, (중략)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문학 활동에 머물러 있었다. 다른 한편 여류 시인이니 여류 작가니 여류 00이니 하는 명칭은 인간의 보편화된 휴머니즘에 참여하는 작가정신을 암시하기보다는 매우 특정한 신분 집단(다분히 귀족적)을 지칭하는 프리미엄으로 통용되기도 하였으며 평범한 여성들에게는 여류 명사 신화를 조장하기도 하였다.¹⁸⁾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말까지 10여 년에 이르는 기간은 ‘여류문학’의 번성기였다.”(162쪽) 신문과 잡지 등 등단매체의 폭발적 증가, 대중적 연재소설의 흥성 속에서 여성작가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7) 고정희, 앞의 책, 156쪽.

18) 고정희, 앞의 책, 172-173쪽.

고정희는 60년대 여성문학은 질적,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문단의 주도적 흐름에서 고립되어 있었다고 진단한다. 또한 그 원인은 60년대 여성문학의 탈사회적, 탈민중적 속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고정희 문학의 지향점이 사회비판 내지 민중적 속성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위 글에서 고정희는 ‘여성문학’과 ‘여류문학’, ‘여류작가’, ‘여류시인’, ‘여류명사’와 같은 어휘를 함께 쓰고 있다. 여성문학은 ‘여성’이 쓴 문학, “진정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문학”(175쪽)을 지칭한다면, 여류문학은 중산층 여성이라는 신분적 프리미엄과 ‘여류’라는 프리미엄의 틀에 갇힌 작가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여성문학과 여류문학을 혼용해 쓰면서 60년대 문학을 ‘여류문학’으로 정의한 것은 일종의 전략이었다.

고정희는 70년대를 ‘탈여류문학’이 본격화된, 여성문학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평가한다. 그 근거가 되는 작가는 강은교, 박완서, 오정희이다. 이들은 “중래의 ‘여성의 감상성’ 혹은 ‘감상적 신비주의’라는 편견을 깨고 시대적 경험을 보편적 공감대 안에서 심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여류’라는 프리미엄을 거부, 제거시켰”¹⁹⁾기 때문이다. 고정희의 여성문학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입장은 8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진술에서 구체화된다.

여성주의 문학은 ‘여성들이 하는 문학이다’는 성별 분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 문화를 극복하고 참된 인간해방 공동체를 추구하는 대안 문화로서 ‘모성문학’ 혹은 ‘양성 문화’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여성문학은 굳이 여성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를 자기 경험 속에서 아파하고 혹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²⁰⁾

19) 고정희, 앞의 책, 175쪽.

20) 고정희, 앞의 책, 177쪽.

고정희는 여성문학적 시각으로 무장한 비평가의 출현을 고대하였으며, 창작적 과제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고발문학적’ 차원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비하시킨 사회 구조와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지니고 있는 신비와 은폐성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문학, ‘혁명주의적(혹은 이상주의적)’ 차원에서 “작가 자신의 새로운 세계관으로부터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문화감각”으로 무장한 문학이 그것이다. 고정희는 고발·폭로와 새로운 유토피아적 비전을 동시에 지향했다. 이는 민중성과 ‘자매애’, ‘모성성’을 포괄하는 여성문화적 비전 양자 중 어느 것에 선차성을 둘 것인가에 대한 80년대 여성문학 논쟁을 두고 고심했던 고정희의 독자적인 해결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성주의 문학 어디까지 왔는가?-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는 위 글보다 몇 년 후인 1990년 2월 『문학사상』에 발표되었다. 시기적으로는 80년대 민중문학, 노동문학의 성장 및 여성문학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나온 것인데, 고정희는 특히 “남성중심적인 ‘민중주의의 해체와 반성’이 ‘여성해방 문학’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²¹⁾는 점에 주목한다. 고정희는 객관적 입장에서 『여성』지 그룹의 관점과 『또 하나의 문화』 동인의 관점을 정리하고 있다. 여성문학의 논의와 쟁점을 “계급해방을 통해서만 여성해방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리얼리즘 시각 혹은 ‘여성노동자의 시각’”과 “성모순과 계급모순을 똑같이 타파의 선결과제로 보는 사회주의 시각”²²⁾으로 나눈다. ‘여성노동자의 시각’을 취한 관점에 대해서는 선언적이고, 여성문학이 계급문학이나 노동자 문학의 부분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경계하고, 사회주의(여성해방론)의 시각에 대해서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자체는 드러난 현실일 뿐 그것을 가능하게 한 토대는 바로 가부장적 권력구조”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시각이 지닌 한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조혜정과 김영혜의 비평을 빌려와 ‘성모순’에 대한 천착이 소재주의

21) 고정희, 앞의 책, 192쪽.

22) 고정희, 앞의 책, 195쪽.

로 빠질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고정희는 앞의 글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하는 문학’, ‘여류문학’과 여성해방문학을 구별하면서도 “민중문학론이나 리얼리즘 문학론에 쉽게 편승시키는 낙관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자매애’에 대한 믿음, 고발 문학의 단계를 넘어 선 새로운 비전에 대한 모색이 이 시기 고정희의 지향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구현해 가고자 하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을 뚜렷이 제시하고 그 세계를 우리의 생활 속에 끌어들이 수 있도록 새로운 문학적 양식을 창조”하려는 조혜정의 문제의식은 고정희에게서 성과 계급/민중 범주를 함께 형상화하고자 하는 고민으로 구체화되었다. 고정희는 80년대 여성해방문학 비평의 대립각을 인지하면서 『여성』지 그룹의 ‘이론 정립’ 작업과 『또 하나의 문화』, 민족작가회의 여성분과의 ‘창작 소집단 활동’ 간의 상호보완적 작업이 여성 문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 소통의 정신은 고정희 여성문학비평이 지향했지만, 80년대 우리의 여성문학비평이 실천하지 못했던 정신이었다.

5. 나가며-40대에 고정희 시를 읽다

맞벌이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일곱 달 된 아기엄마 구자명씨는
 출근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준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씨,
 그래 저 심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우리동네 구자명 씨-여성사연구 5」

고정희의 ‘여성사연구’ 연작은 여성해방사상을 목적의식적으로 말한 시로 유명하다. 「반지뿔기 부인회-여성사연구2」, 「남자현의 무명지-여성사연구3」에서와 같이 역사적 사건의 주체가 된 여성, 근대 초기 여성들을 호명하는 고정희 시의 전략은 뚜렷한 여성해방의식을 요구했던 80년대 여성문학비평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 천년 대 고정희를 알고, 그의 시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일까? 지하철 플랫폼 유리벽에 걸려 문화서울의 전시물로 시가 소비되는 이 시대에 고정희 시를 읽는 주 독자들은 고등학생들이다. 「우리동네 구자명 씨-여성사 연구5」가 20여종에 달하는 문학교과서에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밝혔듯 고정희 시를 80년대에 가슴이 아닌 머리로 읽었던 필자는 이 천년 대에 고정희의 ‘구자명 씨’를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우연히 접하면서 새롭게 발견했다. 대학입시용 문학공부에 올인해야 하는 학생들은 이 시에서 시적 화자와 어조를 찾아내야 하고,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시구를 찾고, 각 연의 시상 전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시는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여성의 고달픈 하루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자명 씨는 당대 우리 여성의 전형을 담고 있다는 것, 주제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삶의 고비를 많이 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 시의 실감은 그저 어느 문학교과서 학습활동에 실린 것처럼 만성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수험생활의 고달픔을 겹쳐 읽는 데 그칠 수도 있다. 물론 문학교과서의 정전화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고정희의 시가 교과서에 수록된 것, 고정희가 페미니즘 시인으로 교육현장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반가움과는 별개로 기혼여성이자 맞벌이 주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486세대 여성들은 이 시에서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있어도 즐기고 있는 여성의 고단한 삶, 가족을 위해 흘러가는 “저 십 분”을 실감과 공감으로 읽어낸다.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라는 역설적 비유보다, ‘죽음의 잠’과 ‘거부의 화살’이라는 시어 간의 긴장보다 반복적인 ‘저 십 분’이 환기하는 절박함이 더 뾰족하게 여겨진다. 40대에 경험과 가슴으로 읽는 고정희의 시는 시인이 지향했던 민중성과 일상성의 힘이 시적 감동의 원천임을 새삼 환기한다. 이것이 고정희가 80년대에 지향했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여성문화적 비전의 시적 성취인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정희. 「한국 여성문학의 흐름-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문화』 2호. 또하나의문화,
_____. 「소재주의를 넘어 새로운 인간성의 실현으로」,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90.2
- 구명숙, 「80년대 한국 여성시 연구-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성 일탈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숙명여대한국학연구소, 1996.
- 김두한, 「‘여성’ 그 왜곡된 기호에 대한 시적 저항-고정희 시집 『여성해방출사표』의 세계」, 『한국현대시비평』, 학문사, 2000.
- 김란희, 「고정희 ‘굿시’에 나타난 기호적 코라의 특성-『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를 대상으로」, 『비교한국학』 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 김승희, 「상징질서에 도전하는 여성시의 목소리, 그 전복의 전략들」, 『여성문학연구』 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정치학-197-80년대 진보적 민족문화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경계에 선 여성문학』. 역락, 2009
- 김영혜. 「고독과 사랑, 해방에의 절규: 고 고정희의 시세계」. 『문예중앙』, 중앙일보사, 1991년, 봄.
- 김정환. 「고통과 일상성의 변증법」. 고정희. 『초혼제』. 창작과비평사, 1983.
- 김진희. 「서정의 확장과 시로 쓰는 역사」. 『비교한국학』 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 문혜원 「고정희 연시의 창작 방식과 의미-『아름다운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 송명희, 「고정희의 페미니즘 시」, 『비평문학』, 1996.
- 유성호. 「민중적 서정과 존재 탐색의 공존과 통합」. 『작가연구: 1980년대 문학』. 깊은샘, 2003.
- 이경희, 「고정희 시의 여성주의 시각」,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학회, 2008.

-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67호. 창비, 1990년, 봄.
- 이소희, 「『고정희』를 둘러싼 페미니즘 문화정치학-여성주의 연대와 역사성의 관점에서」, 『젠더와 사회』, 한양대 여성연구소, 2007.
- 정효구, 「고정희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인문학지』, 충북대인문학연구소, 1999.
- 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또 하나의 문화3호-여성해방의 문학』. 또하나의문화, 1987.
- _____. 「박완서 문학에서 비평은 무엇인가」. 『글읽기와 삶읽기』1권. 또하나의문화, 1995.
- _____. 「그대, 쉬임없는 강물로 다시 오리라」.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하나의문화, 1993.
- _____. 「시인 고정희를 보내며」.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하나의문화, 1993.

〈Abstract〉

Literary Experience of 486 Generation's Woman and Goh Jung Hee

- Focused o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Literary Discourse in 1980's

Yangsun Kim
(Hallym University)

This thesis intends to speculate the meaning of Goh Jung Hee's literature in the context of 486generation's woman's social and literary experience. First, the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literary criticism can be told through what is told and isn't told in the field of literary criticism. Next, Goh Jung Hee's feminist literary criticism and her poetry that influenced on the feminist scholar will be re-read.

First, Goh Jung Hee's poetry had not been seriously dealt in the field of literary criticism. Because her poetry took up the position both people's viewpoint and woman's viewpoint, the poetry wasn't be interpreted in the nation-oriented and, class-oriented criticism.

Second, even though her feminist literary criticism was only two pieces, it became the basis of women's literary studies.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literature', the writing about women's novels and poetry from ancient period to 1980's, gave the raw materials to the next scholars of women's literary history and women's literary institution. In 「How far feminist/feminine literature come?」, she suggested the three stages of feminist/feminine literature,

and pointed to the accusation and disclosure and new utopia vision simultaneously. This was the her solution which conflicted between the people's power and sisterhood.

In addition to, Goh Jung Hee's poetry presented the feminism through the 'study of women's history' serials, and realized the women's cultural vision based on the sympathy and solidarity in the 'forties', 'love', and 'our town's Mrs. Gu Jamyong'.

Keywords : 486generation, feminine/feminist literary criticism, women's cultural vision, feminism, sisterhood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12.5 / 게재확정일 : 8.10